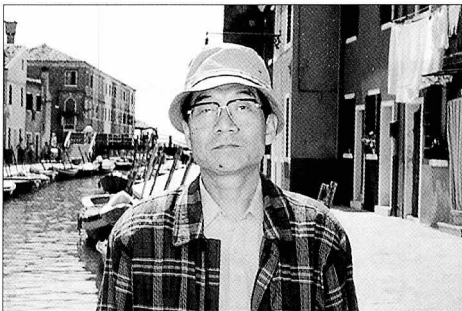


「사랑해요, 국립공원」

'97 국립공원 문화제전에 붙여

이 재 근 (국립공원협회 이사 전 서울신문 논설주간)

제1차 세계대전후 당시의 선진국들이 앞을 다투어 국립공원을 설정한 까닭은 한마디로 그들이 공원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공원을 자연생태연구의 실험장으로, 자국민족역사와 전통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인간환경훼손에 대한 비교교육장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과 자연의 「만남의 장(場)」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이다.



1872년 미국의 엘로우스톤 국립공원의 지정은 오늘날 국립공원운동의 효시가 된다. 국립공원은 미국인들에게 「수려한 자연경관, 역사유적지, 그리고 야생동물의 보호와 그를 통한 즐거움 또는 후세대

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한 유보(留保)의 자원」으로 인식된다. 1972년 제2차 세계국립공원대회에서 채택된 국립공원의 요건은 국립공원의 의미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즉, 국립공원은 「생태계가 인간의 개발이나 점유에 의해 본질적으로 변화를 입지 않고 동식물의 종류와 지형학상의 위치나 품습이 학술·교육·휴양상의 관심대상이 되거나 자연적으로 뛰어난 경관미를 지닌 지역」이며 따라서 인간의 비용

은 「영감, 교육, 문화, 휴양을 얻을 목적으로 허용되는 곳」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의 국립공원은 이러한 의미개념에 충실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자연공원법에 명시된 국립공원 지정목적을 보면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며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인간의 개발이나 점유에 의한 본질적인 변화를 입지 않은 생태계」라는 보편적인 개념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인식 자체도 본 의도와는 동떨어져 있다.

이제 우리 국립공원인들은 단호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진정 우리의 얼굴과 자존심이 되어줄 수 있는 국립공원을 재정립하는 일이다. 내세우기 위한 국립공원이 아닌 자손만대에 물려줄 우리의 귀중한 유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할 국립공원의 건전한 이용과 바람직한 탐방 행태는 각 개인의 취향과 가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립공원 내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통한 아름다운 국토의 조망, 공원내에 서식하는 동·식물 등 생태자원의 탐구, 공원 내에 소재하는 각종 사적과 문화유산답사 등 국립공원이 자연박물관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사실 우리 국민은 아직도 국립공원을 여가 공간이나 위락·행락 공간정도로 인식하고 있고, 그 이용성향 역시 먹고 마시고 노는 놀이마당 내지 관광지나 유

원지에 머무는 상태이다.

따라서 국민소득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국민의 휴식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국립공원의 역할 증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오늘날 국립공원의 보호, 보존과 이용 개발이라는 상반된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매개체인 공원시설의 적절한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방식을 강구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국민적 문화인식의 함양이다.

국립공원 문화인식이란 앞서도 지적된 바 공원을 자연생태연구의 실험장으로, 민족역사와 의식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인간의 환경훼손에 대한 비교교육장으로, 겸허한 삶의 체험장으로, 인간과 자연의 만남의 광장으로 판단하는 개념인식이다.

아름다운 자연문화공간을 문화국민답게 이용할 줄 아는 세련된 태도와 생활문화는 이러한 근본적인 국립공원 문화인식에서 출발한다. 그것이 바로 국립공원 사랑이다.

훌륭한 문화적 공간은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각 개체들이 모두가 문화적인 조화를 이룰때 비로소 참다운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그런점에서 국립공원 사랑은 인간생명체에 대한 외경과 보호의 의미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산, 우리들의 국립공원에는 항상 「만남」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산의 정기를 담백 머금은 동·식물과 하늘, 달, 별, 구름을 산이 아

니면 어디서 만날 것인가. 우리들의 산과 바다, 국립공원에는 또한 「평화·관용·신뢰」가 있다.

어지러운 세상살이에서 찌든 상처는 그냥 산과 바다에 가면 거기에 묻혀버린다. 산악인들에게 산이 거울이듯이 국립공원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문화의 원천이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산에는 산격(山格)이 있으며 바다에는 해격(海格)이 있다. 더구나 산은 사람이 본디 그 됃됨이에 만족하지 않고 인격을 닦아 나가듯이 더위와 추위, 눈과 비바람을 모두 맞고 서서 자신의 격을 품위있게 다져가는데 여념이 없다.

국립공원은 자연과 인간을 모두 한데 아우르는 포용성의 상징이다. 자연환경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으로서 자연 속의 국립공원을 가꾸고 보존함이 바로 인간존중과 생명보호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바로 '97 국립공원 문화제전이다.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혜를 배우고 이를 자아실현의 장으로 삼아 올바른 공원문화 발전에 앞장서고자 하는 모든 국립공원인의 자부심을 높이고 단합을 부추기는 「인간과 자연」의 만남의 광장이 바로 '97 국립공원 문화제전인 것이다.

글자 그대로 공원문화축전임이 분명하다. 국립공원은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자연 환경이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인간문화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사랑해요. 국립공원!

우리모두는 국립공원을 사랑합니다! ●